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들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공동체 중요성·향토문화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8일(수) 대전 한밭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2017 전국 농업인 두레풍물 경연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국 농업인 두레풍물 경연대회'는 전문 연주자들이 아닌 일반 농업인들이 일상에서 닦은 기량을 펼쳐 보이는 순수 생활 국악 경연대회이다. 이번 본선대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월) 예선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단체(농업인 두레풍물 6, 어린이 국악 5)가 함께 모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농업인 두레풍물, 어린이 국악 2개 부문 각 6개5개 단체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그간 쌓아온 기량을 실컷 뽐내면, 사물놀이, 농악, 국악계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프로그램 구성, 퍼포먼스 기량, 화합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상으로 두레풍물 부문은 대상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 기량과 독창성 등이 뛰어난 1팀의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함께 해 온 두레풍물 경연대회가 농촌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향토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천 역사와 문화' 공감의 장 마련
지역사회 이해·소통·교류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깊어가는 독서의 계절 가을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을 11월 2일(목) 이전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김천 역사와 문화'란 주제로 '김천의 마을과 전설', '지명으로 본 감문국'등을 저술하고,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다수하신 김천문화원의 송기동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김천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2016년도 김천 청사로 이전한 이래로 두 번째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연에 이어 검역본부 행복동 앞마당에서는 지역농민들이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으며, 김천문화예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바자회를 개최해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분야 위기상황 대비
역량강화 훈련...문제점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의약 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30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실시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가상의 위기상황에 대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모의훈련으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산업체 등이 참여한다. 훈련 일정은 △비상소집 훈련(10월 30일) △지진대비 대피 훈련(11월 1일) △의약품 사고 위기대응 훈련(11월 3일) △긴급대응 조치훈련(11월 8~9일) △지자체 위기대응 워크숍(11월 10일) 등이다.

특히, 의약품 사고 위기대응 훈련의 경우 유해 의약품 원료가 국내로 수입되어 완제의약품으로 제조·유통된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고, 일선 제약업체에서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위기대응 훈련이 됐다.

식약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검토
제2차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추진하기 위해 제2차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생방역본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전화예찰요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학계·노동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23일 제1차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신유철)를 개최했다.

제2차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신유철)에서는 1차 이후 추진경과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전환을 위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며,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농생명분야 고교생 대상
'스마트 청년인재양성' 교육 운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농생명분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1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스마트팜교육단(전북 혁신도시 소재)에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청년인재 양성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개발한 최신 농업기계와 농업기술을 소개하고, 기계조작과 기술실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또한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팜 설계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현재를 알려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실험공간과 식물공장 견학 △시설원에 탐방과 현장교육 △팔기를 이용한 DNA분리체험 △중자산업의 전망 교육 등도 실시했다.

* 아두이노(Arduino) : 다양한 전자부품을 이용해 움직이는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특별상 수상
국내유일 농업과학 연구정보 제공



농촌진흥청(라승용 청장) 농업과학도서관이 10월 25일(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농업과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농업과학 연구 분야 도서관으로서 전문적인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올해 운영평가는 전문, 공공, 학교, 병영, 교도소 도서관 등 전국 15,07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의 우수 도서관은 △도서관경영 △인적자원 △시설환경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5개 영역으로 나눠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농업과학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농업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장서를 확충하고 전문 연구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첫 'HACCP KOREA 2017' 성료
HACCP인증 희망업체 맞춤형서비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 인증원)가 10월 26일(목)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HACCP KOREA 2017'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HACCP KOREA 2017' 행사에는 식약처 최성락 차장과 HACCP인증원 장기윤 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업계 HACCP 전문가, 소비자, 언론, 유관기관 등 국내외 HACCP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기윤 원장의 개회사와 최성락 식약처 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의 막을 열었다. 이어 2부는 국제 HACCP 세미나, 3부는 HACCP 정책포럼을 진행한 후 공식행사를 마쳤다.

10월 25일(수)부터 4일간 서울국제식품산업전내 HACCP 체험관에서는 해썬 인증제품 찾기, HACCP 영상 상영, 해썬 이벤트 등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했다. 또한 사전 예약 및 현장 HACCP 기술 상담을 통해 HACCP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간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조직경쟁력 향상...발전방안 제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 인증원)은 11월 7일(화)~8일(수) 양일간 팀장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Leader로서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2017년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본원 및 6개 지원의 팀장과 2개 출장소 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Leader의 역할 및 HACCP인증원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초청특강과 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율토론으로 진행됐다. 초청특강을 진행한 민승규 전 농식품부 차관은 HACCP인증원의 중간관리자로서 전문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분야의 꿈을 가져라", "항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라", "변화하는 경쟁시대 속에 창의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율토론 시간에는 소통활성화 방안, 중장기 발전방안, 중간관리자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통합 이후 현재까지를 돌아보며 본·지원 중간관리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장기윤 원장은 "팀장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길 바라며, 정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